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전북 국회의원 '원팀' 선언

새만금 첨단산업기지 조성·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내년 예산 확보 관련 누락된 전북 사업 국회 심의단계서 증액 총력 뜻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손잡고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역의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정과 정치권의 '원팀' 협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췄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국정과제 반영 후속 대응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농촌

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 △공공의대 설립·전북특별법 개정·가정법원 설치 등 주요 입법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안에 과소 반영되거나 누락된 전북 사업들의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 국정과제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 동력이 되도록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실증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국가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균형성장과 수도권-영호남 간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농촌진흥청 일부 조직의 수도권 이전 문제에 대응해,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의 전북 완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법, 도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일 가정법원 설치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할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협력할 때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며, 예산과 법안 등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도정이 힘을 모아 도민께 희망을 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켜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4일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대응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

도, 1차 중간보고회 개최

를 비롯해 도 관계자, 전북연구원,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착수했으며, 국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전략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도는 △전북의 대내외 환경 분석 △정부 승인을 위한 개최계획서 작성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 유치 여건 분석과 대국민 인식 조사를 완료했으며, 경제성 검토도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이어 도의회 승인과 정부 심사에 대응하고, IOC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맞아 무주 태권도원에서 '2025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의 힘

2025 태권도의 날 기념식... 500여명 참석

품새·축하공연·표창 수여식 등 진행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11시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성희 체육협력관과 세계태권도연맹 김상진 부총재, 국기원 이동섭 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상익 회장, 국기원 원로위원회 이승완 의장, 태권도 9단회 허승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협회 및 5개 연맹에서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무주군 황인홍 군수,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 등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는 태권도 9단회 원로들과 품새 국가대표 변재영 선수의 품새 시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는 계명대학교 정병기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 요르단 태권도협회 하짐 나이마트 부회장 등 11명이 수상했다. 또한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태권도 공공외교 확산에 기여한 공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임동문 국제부장이 외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수상에 이어 이날 기념식 특별 퍼포먼스로 LED를 활용한 '태권도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의 힘'이라는 슬로건 표출과 52개국 193개 팀이 보내 온 태권도의 날 축하 사진 및 영상이 상영되며 기념식을 마쳤다. /무주=전문서 기자

올해 첫 시행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계획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11월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https://sfm.lpc.or.kr)에서 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제18회 정읍 가을축제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합니다!

주최/주관 정읍시 /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2025.10.14.(화) ~ 10.26.(일)
구절초 지방정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18.(토) 오후 3시
출연가수

박창근

장민호

김태연

방서희

김예슬

명사 초청강연

10.19.(일) 개그맨 김영희, 정범균
10.25.(토) 개그맨 윤택
10.26.(일) 개그맨 최양락, 팽현숙

김영희
정범균

윤택

최양락
팽현숙